

2023년 사역을 돌아보며

I. 감사

안녕하십니까?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감사를 전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면 더욱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소망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미처 마치기 전에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십일월을 맞이하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만회해 보려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음은 선교사의 삶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특권이라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신 귀한 동역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선교의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길이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손 모아 기도로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와 보호를 간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귀한 섬김에 감사하며, 헌신적인 드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복을 누리니 또한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순종을 통한 순전한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II. 2023년 사역

이런 든든한 동역으로 인해 2023년도 감사로 지내며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축복, 지역의 몇몇 교회들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기쁨,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 더 깊은 위출(Huichol) 인디오 원주민 마을에 믿음공동체가 세워져가며 믿음의 식구들이 늘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산타 바바라(Santa Barbara)마을의 9가정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세워질 예배당을 기대하며 땅을 알아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당 벽돌을 구우며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디오마을의 형제, 자매들로 인해 감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교회의 지체로 섬기다 먼저 주님 품에 간 형제, 자매들이 떠오르는 것은 함께 동역했던 시간들의 기쁨과 행복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움이며 동시에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의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계속 나가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걸어갈 수 있음은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III. 기도요청

지난 시간이 은혜였다면, 앞으로의 시간 또한 은혜일 것을 믿기에 선교지의 필요를 나누며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1.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하는 동행의 기쁨이 없다면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만족, 기쁨이 있도록...
2. 두 곳의 인디오 마을(산타바바라, 우아나과슬레)마을의 예배당과 선교센터 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산타바바라 마을에는 9가정이 형제들의 집을 돌아가며 모이고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를 발견하고 주인과 만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순전히 일이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아나과슬레 마을에 인디오 청소년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센터 부지가 구입될 수 있도록...
3. 멕시코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서 사용하고 있는 과달라하라의 건물이 16년이 되어가고 있어, 건물보수와 에어컨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4. 하비엘&카르멘 부부가 영혼구원을 통한 제자만드는 사역자로 잘 준비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5. 끝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선교소식을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멕시코에서 추기성&정지연선교사드림